

碩士學位請求論文

兒童期 또래집단의 特性과
學校生活態度와의 關係 研究

指導教授 高明奎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金 美 京

1999年 8月

兒童期 또래집단의 特性과 學校生活態度와의 關係 研究

指導教授 高明奎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 專攻



金美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9 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抄錄>

兒童期 또래집단의 特性과
學校 生活 態度와의 關係

金 美 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相談心理專攻

指導教授 高明奎

본 연구는 아동들이 형성하는 또래집단의 특성과 학교 생활 태도의 관계를 질문지를 통해 실태 분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1.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2.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또래집단의 친구 수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2-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집 대상을 제주도내 초등학교 5·6 학년 720 명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89 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처리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집단 형성요인과 학교생활 태도의 관계중 근접성 요인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생의 경우 동일거주지가 요인이 된 또래집단이 학교적응도와 수업충실도가 높으며 같은 학교이거나 반이 요인이 된 또래집단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둘째, 또래집단 형성요인과 학교생활 태도의 관계중 유사성 요인을 보면 도내 초등학교생의 경우 성적이 유사한 집단이 학교적응도와 수업충실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환경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또래집단 유형과 학교생활 태도의 관계중 친구수에 따른 유형을 보면 성별, 지역별 모두에서 친구가 1명인 집단이 가장 긍정적인 학교생활 태도를 보이며 친구가 5명 이내로 적은 경우가 대체로 학교생활태도에 유의한 수준으로 긍정적 경향을 보인다.

넷째, 또래집단 유형과 학교생활 태도의 관계중 집단내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유형을 보면 성별, 지역별 모두에서 집단내 우두머리가 없는 또래집단이 모든 학교생활 태도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또래집단 유형과 학교생활 태도의 관계중 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유형을 보면 성별, 지역별 모두에서 집단의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이 모든 학교생활 태도 하위 영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생의 또래집단 특성과 또 그에 따른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아동의 학교생활 태도는 그 아동이 속해 있는 또래집단이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아동기 또래집단이 그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 성격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아동교육을 또래집단내의 역동을 이용해 지도함으로써 보다 아동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시사한다.

參 考 文 獻

- 고명규 (1978).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에 관한 일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0.
- 고진경 (1987). “아동의 교우관계 개념 발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이중 (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 양서원.
- 김길순 (1995). “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지원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남성 (1985).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김미란 (1993). “야간고등학교 학생문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선 (1989). “국민학교 아동의 우정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성 (1992). 「학교의 사회 심리학」, 서울 : 양서원.
- 김소희 (1990).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행자 (1985). 「아동발달론」, 서울 : 수학사.
- 문정숙 (1990). “유아의 교우관계 지위유형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덕후 (1991).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양상에 대한 도시, 농촌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소현 (1978). “중학생의 우인간의 심리적 유사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용현 (1973). 「사회적 행동과 학습교육학 전서」, 서울 : 교육출판사.

---- · 최정숙 (1974). 「교육사회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985). 「학교 사회」, 서울 : 배영사.

박희숙 (1985). “6-7세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과 집단내 인기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송규운 (1988). “지각성향 수준에 따른 교우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오세득 (1990).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인기아와 고립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명석 (1992). “초등학생의 배경특성이 교우관계 결속 및 해체에 미치
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유재정 (1992).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윤정희 (1989). “학급내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중 (1994). “아동 후기의 교우관계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규환 (1961). 「교육사회학, 현대교육총서 6」, 서명원(편). 서울 : 현
대교육출판사.

이선경 (1989). “용모, 선호, 성격정보가 아동의 대인매력에 미치는 영

- 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용교 (1992).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8호」, 한국 청소년 연구원.
- 이정덕 (1987). 「아동학」, 서울 : 교문사.
- 이재우 (1993).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정 (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이혜원 (1989). “국민학교 아동의 친구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이혜정 (1989). “노는 애들의 세계, 중학교 또래 집단의 학교 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희승 (1991). 「우리말 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 임용수 (1985). “학교 생활 태도 척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세영 (1996). “고교생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 관련 태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 최순자 (1984). “아동 후기 교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함중환 (1984). 「청소년(교육심리학적 접근)」, 서울 : 상조사.
- 황종건 (1984). 「교육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 Bar-Tal, D. & Saxe, L. (1978).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Drewry, D.K., & Clark, M.L. (1984). Factors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preschooler's friendship,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 37-44.

Cusic, P. A. (1973). *Inside High School*, New York : Holt.

Goodlad, J.I.(1984). *A Place Called School*. New york : McGraw-Hill.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o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 Wiley.

Havistghurst & Neurgarten. *Education and Society*, Boston : Allyn and Boston Inc.. 이상로. 이윤수 역 (1983).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 출판사.

Hurlock, E. B (1985). *Child Development*, Sixth Edition, Singapore : Kin Keong Co. 2.

Morrish, I. *The Sociolgy of Education : An Introduc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석태중 역 (1985). 「교육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Sugarman, B (1967). "Involvement in Youth Clture, Academic Achievement and Conformity in School ", *Britich Journal of Sociology*. Vol. 18 No. 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급 내에서 아동들의 친구관계는 아동들의 행동을 예언하는 좋은 준거가 된다. 아동들은 각자 다양한 친구관계를 이루며 끼리끼리, 때로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생활을 해 나간다. 이 친구관계는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 아동들의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자신이 만족하는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들은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다. 반면, 소극적이거나 성격상 친구들의 무리와 함께 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친구관계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대다수가 표정이 밝지 못하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응집력이 있어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내에서 우리 의식을 가짐으로서 집단 구성원은 상호관계를 맺고 동일화가 이루어지며 그들 개개의 태도나 행동은 상호관계에 따라 성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친한 친구가 생기면 그들과 어울리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 친구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집단 내에서 기대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사고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들이 아동들의 또래관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학교 문제가 적지 않다.

최근의 또래 관계는 소위 ‘짱’이라는 우두머리를 내세우고 점차 집단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며 소수이지만 같은 친구를 따돌리고 폭행하며 어른 못지 않은 심각한 학교문제를 만들어내는 아동들도 생기게 되었다. 교사들을 보는 아동들의 눈 역시 예전 같지가 않다. 친구들 사이의 왜곡된 인간관계는 그대로 사제지간의 왜곡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아동들의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은 학교 내의 또래관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바르게 지도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는 애들” 연구에서 또래집단 종류와 집단별 특성을 제시한 이해정(1989)의 연구, 성적을 친구의 판단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김소희(1991)의 보고와 또래집단이 학교생활에서 채울 수 없는 욕구충족의 돌파구로 이용되어 신체적 힘으로 분류된다는 유재정(1992)의 보고, 공부와 노는 것의 두 축으로 또래집단을 형성해 두 집단간에 학교 안팎에서 상이한 행동의 차이를 보이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김미란(1993)의 연구는 모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또래집단의 특징이나 종류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교우관계 선택에 대한 연구들, 교우관계의 개념 변화에 대한 연구들, 아동들의 학급 내 교우간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아동의 개별적 요인이 친화력이나 배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여러 교우 집단들이 학교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집단 역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토대로 아직 초등에서 다른 영역보다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또래집단의 특성과 학교생활태도와

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이루는 또래집단을 아동세계의 근원지이며 기초 단위로 인정하고 아동들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또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집단이 아동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아동들의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아동들의 학교생활태도와 행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동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인적 교육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등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들이 형성하는 또래집단의 특성이 학교 생활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자료는 바람직한 또래집단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또 좀 더 나아가 아동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 학급운영과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2. 연구문제와 가설

아동들이 형성하는 또래집단의 특성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구명이라는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또래집단 형성요인(근접성, 유사성)에 따른 학교생활태도 (학교적응도, 수업 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2. 아동기 또래집단의 유형별(친구의 수, 우두머리의 유무, 도당성

여부)로 학교생활태도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1.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2.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또래집단의 친구 수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또래집단의 특성과 아동기 학교생활태도에 대해 고찰한 후, 두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아동기 또래집단의 특성

본 연구에서 또래집단의 개념은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작용하는 2인 이상의 모임이며(최세영, 1996), 또래집단의 특성은 형성요인과 유형을 포함한다. 아동기의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또래집단의 형성요인

아동들의 또래집단 형성요인, 즉 교우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그 분류와 이론이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이론, 보완성 이론, 유사성 이론, 욕구 보충성 이론,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 등의 이론 중에서 접근 이론과 유사성 이론을 형성요인으로 선택하여 이용하였으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접근이론, 유사성 이론, 욕구 보충성 이론의 세 가지 이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접근 이론이다. 저학년인 경우에 이웃에 산다든지 옆자리에 앉는 다든지, 같은 교회에 다닌다든가 하는 물리적 접근조건에 의해 친구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물리적 접근에 의해 친구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물리적 접근 자체 때문이라기 보다는 접근이 교우관계를

촉진시키는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접근에 의해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할수록 호감이 더 일어나게 된다(김남성, 1985).

둘째, 유사성 이론이다. 친구선택에 관한 이론 중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유사한 속성을 지닌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사성의 하위요인으로는 연령, 자아개념, 지능, 인기도, 매력, 사회계급, 출생순위, 형제수 등을 들 수 있다(Drewry & Clark, 1984).

유사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아동들이 같은 연령이나 같은 지위, 같은 성을 지녔을 때 성공적인 교우관계를 맺기 쉽다고 함으로써 교우선택에 있어서 태도의 유사성, 성격의 유사성, 능력의 유사성, 선호의 유사성 등이 친구선택과 중요한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선경, 1989).

셋째, 욕구보충성 이론이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욕구나 특성이 자기와 일치하는 사람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이다.

욕구보충성 이론은 상보성이론과 같은 이론이며, 형평이론 또는 균형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관계들이 공평할 때에 가장 만족을 느끼며 우리는 타인들에 의해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개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Greenberg & Cohen, 1982).

김남성(1985)은 상보적 관계를 다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이 그 욕구가 낮은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이 그 욕구와 반대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이다.

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거나 타인과의 상호보완에 의해 향상을 꾀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지위성 기준이나 호혜성 기준과 통한다고

도 볼 수 있다. 지위성(status)기준이란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존경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명성도 얻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친구의 선택에 있어 자신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호혜성(reciprocity)기준이란 친구의 선택에 있어 서로 보조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친구로 선택하려는 경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좋은 점을 주고 받음으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때, 타인을 친구로 선택하려 함을 뜻한다. 즉, 아동들은 내게 없는 그 무엇을 친구가 지니고 있을 때, 그런 동료를 친구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선택에 대한 선행이론들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박소현(1978)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교우관계에서 선택되어짐을 보고하였는데, 최순자(1984)의 친한 친구 사이에 학업성적이 비슷하다는 연구와 박덕후(1991)의 성적이 교우선택요인에서 77.26%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정희(1990)는 성격특성을 교우관계의 첫째 요인으로 꼽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이혜원(1989)은 친구선택 기준을 호혜성(互惠性)과 유사성으로 보고 있으며, 윤혜중(1994)은 아동후기 교우관계에 대한 일 연구에서 교우관계 형성요인이 근접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2) 또래집단의 유형

또래들끼리 이루는 아동집단에는 친한 사이에 형성되는 소규모 집단에서부터 조직된 대규모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래집단 유형은 분

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개는 활동 내용과 집단 크기에 의한 분류가 일반적이다.

Sugarman(1968)은 활동 내용에 따라 조직화된 경기를 즐기는 집단, 배회하거나 돌아다니며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는 집단,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나눈다.

Hurlock(1985)은 집단의 크기에 따라 단짝, 동류집단, 패거리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고, Brown은 놀이집단, 동류집단, 도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Hurlock은 이를 종합해 단짝, 동류집단(짝패), 패거리, 도당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이용교, 1992).

단짝(Chums or Pals)은 2명이 상호 선택하거나 순환 선택하여 형성되며 응집력 있는 친밀 관계가 발생한다. 이것은 서로 믿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이해하고 행복을 나누고 비밀 갖기를 싫어하고 상대의 단점도 충고할 수 있는 고도의 용기를 가지며 서로 사랑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아동들은 이런 단짝을 구하려는 마음이 강하며 여학생의 경우가 더 강하다(고명규, 1978).

동류집단(짝패 ; Cliques)은 단짝보다는 덜 친밀하고 서로의 친밀도에 차이가 나는 3 - 5명의 집단을 의미한다. 동류집단은 그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이들은 같은 흥미를 갖고 존경이나 애정으로 맺어진 작은 배타적인 사회집단이다. 구성원들은 공통의 흥미에 기초하여 좀 더 주의 깊게 선택되며 이 집단 속에 보통 단짝들이 있어 정서적 결합이 아주 굳어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면 서로 합심해 돕는다. 이들은 항상 함께 있고, 함께 무엇을 하고, 함께 어디에 가는 것이 특징이다.

패거리(Crowd)는 비슷한 가치와 흥미를 가진 여러 개의 동류집단으로 구성되며, 아동들이 형성하는 가장 큰 사회적 단위로서, 서로의 흥미, 기

호, 사회적 이상 등에 의해 선택된 개인들의 집단이다. 이 집단은 집이 서로 가깝다든지 씨름이 같다든지 하는 점에서 이루어진 집단이다. 패의 크기는 중앙치가 8명, 분포는 4-20명 정도로 되어 있다.

도당은 동류집단보다 형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지도자 아래 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뚜렷이 분화되어 성원들의 상호관계가 보다 규율적이다. 그리고 반사회적 집단으로 전환하는 위험을 품고 있는 집단이라 하겠다.

또래집단 유형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또래집단의 구성인원수, 친밀도, 활동내용, 지도자 유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 유형을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 도당성 여부에 따른 또래집단으로 분류한다.

2. 아동기 학교생활태도

1) 아동의 사회성 발달

아동의 사회성은 학교생활태도, 즉 교우관계 전반을 통해 형성된다.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이가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발달 하는 과정에 그 사회에서 인정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교육적 성장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 한다(박용현, 1973).

어린이들은 학급에서 생활함으로써 학급집단 속에서 허용되는 행동을 습득하게 되고 각 개인이 해야 하는 행동을 알게 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고 학급 집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활동의 태도를 기르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3·4학년 때로 이들은 집단으로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열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있어 사회화는 가장 중요한 발달단계 중의 하나로 동료집단이 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아동은 동료집단의 한 구성원이 되고 이 집단은 가족 대신에 어린이의 행동과 태도에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정덕, 1987).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가운데 아동들은 개인접촉을 배우고 적대심, 지배감을 처리하는 방식, 타인을 지도하는 방식 등을 배우며 다른 아동의 욕구도 알게 되고 또 그 입장을 인식하게 된다. 즉, 사회적 통찰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타인과의 협동에 익숙해지게 되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생기게 된다.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을 도와서 문제를 극복케 하는 심리치료적 기능을 발휘할 줄도 알게 된다(김행자, 1985).

아동들은 집단활동을 통하여 사회화의 여러 가지 기본적 태도와 자질을 학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또래들과의 집단 생활을 통해서 자기표현의 욕구와 사회적 인정감을 만족시키며, 이기적인 태도를 버릴 줄 알게 되며 바람직한 사회적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이다. 집단을 통하여 부모나 교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활동은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또 집단활동으로 민주적이 되고, 자기의 소망과 행동을 집단의 소망과 행동에 일치시키며, 집단과 협동하고 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발달시키며,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버리고 자제력·공정·용기·정의·참을성·타인의 동기나 감정에 대한 민감성 등 좋은 품성이 발달된다(김행자, 1985).

박희숙(198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은 물리적 요인(놀

이등), 고학년은 심리적 요인(친밀성, 공유, 지지, 도움, 애정, 원조 등)이 교우관계 개념의 요인임을 구명하였는데, 김민선(1989)의 연구에서도 교우관계에 대한 정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아동의 학교생활태도 형성

태도는 막연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사태와 관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내재적인 심리적 속성이다. 즉, 태도는 심적 준비상태이며 개인 내부의 심리적 특성들의 조직구조 중 비교적 심층에 속하는 잠재적인 반응경향이다.

태도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태도에는 학교와 관련된 태도, 학습과 관련된 태도, 교사에 관한 태도, 각 교과에 관련된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태도의 특성을 일반적인 태도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일관성 태도나 학교학습과 관련된 태도들은 개인이 가지는 긍정 또는 부정의 경향이라는 점에서 학교학습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 태도의 특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태도는 가치관과 유사하며 태도의 구성요소끼리는 상호 역동적인 것으로 Skinner는 정서의 상태, 중요한 신념, 편견(bias) 존중의 개념으로서 마음의 준비상태이거나 정착된 상태라고 했다.

황정규(1984)는 태도란 어떤 사물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적 경향성을 뜻하며, 흥미보다는 그 대상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박용현(1973)은 태도의 구성요소는 개인의 생각(인지적 요소), 느낌(감정적 요소), 행동성향(행동적 요소)이라고 하였다. 감정적 요소는 욕구, 동기, 감정 등 기저적 심리층과 밀접히 관련하고 있으면서, 태도 대상을 평

가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감정적 색조를 띠게 되는 태도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고(호감), 싫어하는(증오감) 표현으로 나타나고, 혹은 태도 대상에 대한 관심의 강도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평가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태도의 인지적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지각적 인식에 관계된다. 사물이나 사태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인지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인지과정은 태도 대상에 대한 평가적 정의를 내리게 유도한다. 이를 가치관 내지 신념이라고도 한다. 행동적 요소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한다(박용현, 1973).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요소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있으면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한 태도의 강도는 높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치되지 않으면 그만큼 그 태도는 약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에 관련된 구체적 요소들에 대해 갖는 아동들의 감정은 긍정과 부정의 양극적인 구분보다는 긍정과 부정을 동일 선상의 양 극단으로 하면서 그 정도를 규명하는 선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긍정적 학교생활태도가 강할수록 개인 행위의 긍정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오세득(1990)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인기아 집단이 고립아 집단보다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 자아를 가졌으며 사회적 자아의 점수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길순(1995)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학교생활태도 개념을 이용하였으며 여기서 아동의 학교생활태도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 학습이나 교사에 대해 갖는 감정의 일반화된 경향을 뜻한다. 아동의 학교생활태도 개념의 구체적 요소는 학교, 교과학습, 교사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이 개념은 과거의 부정적 태

도도 성공적인 경험이나 지도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 및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아동기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집단 성격이 구성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긍정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동료집단에서 인정을 받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이며,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배척을 받는 아동은 부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들이 갖는 가치관, 태도, 흥미 등은 그 아동이 소속해 있는 또래집단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Bar-tal & Saxe, 1978).

이런 경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해진다. 아동이 갖는 가치관과 태도·흥미는 부모, 교사, 교과서와도 다소 관련성이 있으나 그들이 소속해 있는 또래집단의 지배적 가치관과 그 집단이 하는 일 등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런 연구들이 시사하는 점은 또래집단의 성격과 구조 등이 아동 개인의 성격, 가치관, 태도, 흥미 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이 자의에 의해 소속된 집단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에 소속하게 되느냐에 따라 생의 진로가 달라지는 예도 없지 않다 (박용현·최정숙, 1974).

Cusic(1973)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급에서 지위에 관계없이 자신들만의 친구집단이 있고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친구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으며, 친구가 없다는 것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함께 있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음식을 먹

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문화가 아동들의 사회화 경험에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Goodlad(1984)의 연구에서는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친구들”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문화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함축하는 바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또래관계가 학교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아동이 속해 있는 또래집단이 아동의 사고, 감정, 태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래집단은 학교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학교 만족도, 학교나 학급일 참여도, 교사와 급우와의 관계, 학습태도 등 학교생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노는 애들” 연구에서 또래집단 종류와 집단별 특성을 제시한 이혜정(1989)의 연구, 성적을 친구의 판단과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김소희(1991)의 보고와 또래집단이 학교생활에서 채울 수 없는 욕구충족의 돌파구로 이용되어 신체적 힘으로 또래집단이 분류된다는 유재정(1992)의 보고, 공부와 노는 것의 두 축으로 또래집단을 형성해 두 집단간에 학교 안팎에서 상이한 행동의 차이를 보이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김미란(1993)의 연구는 모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이처럼 또래집단의 특징이나 종류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의 특징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실시에 따른 연구대상,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6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하면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 현황

구분	성 별		지 역 별				계
	남	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인원 (%)	347(50.4)	342(49.6)	197(28.6)	193(28.0)	142(20.6)	157(22.8)	689(10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또래집단 형성요인과 아동기의 또래집단 유형에 대한 질문지 및 학교생활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

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집단 형성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권이종 등(1994)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교우관계 조사에서 사용한 1문항과 오두경(1990)이 고교생 교우관계 조사에서 사용한 1문항, 즉 이 2문항을 고교생을 대상으로 최세영(1996)이 수정, 사용했던 것을 초등학생에 맞게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둘째, 또래집단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urlock(1984), Brown(1986) 등의 또래집단 유형 분류기준을 근거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최세영(1996)이 사용했던 5문항 중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4문항을 사용하였다.

셋째,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Epstein(1985) 등이 개발한 학교생활의 질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임용수(1985), 김길순(1995)이 사용했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자는 각 하위 영역에서 학교생활 만족도 6문항, 학교 수업 충실도 6문항, 학생의 교사에 대한 태도 6문항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서는 Likert식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쓰여진 질문지는 또래집단의 특성에 대한 6개의 문항과 학교생활태도에 대한 18개의 문항,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영역과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 III-2> 조사도구의 영역과 내용

대영역	하위영역	구성문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a계수
또래집단 특성	또래집단 형성요인	· 근접성	1	1	
		· 유사성	1	2	
	또래집단 유형	· 친구 수	1	3	
		· 대장 유무 · 도당성 여부	1 1	4 6	
학교 생활 태도	학교 적응도		6	1-6	0.80
	수업 충실도		6	7-12	0.67
	교사에 대한 평가		6	13-18	0.51

3. 자료 처리



1) 자료 수집

1998년 12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임의로 한 학교를 선정해 1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1998년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제주도 각 지역의 학교 72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대답하였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한 68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II-1 참조)

2) 자료 처리

본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변인간 관계는

변량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아동기 또래집단의 특성과 학교생활 태도를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1은 아동기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동기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근접성, 유사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는 <표 IV-1>, <표 IV-2>와 같다.

<표IV-1> 아동기 또래집단 형성요인(근접성)별 학교생활 태도의 차이

근접성 학교생활태도	동일학교,반 (n=610)	동일동네, 아파트거주 (n=52)	동일교회, 청소년단체가입 (n=27)	F
학교적응도	14.65(4.43)	15.15(3.72)	13.85(5.04)	0.77
수업충실도	17.76(3.58)	18.01(3.36)	17.62(4.19)	0.14
교사에대한평가	15.50(4.17)	14.61(4.10)	15.03(4.49)	1.21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은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에 따른 학교 생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IV-2>아동기 또래집단 형성요인(유사성)별 학교생활 태도의 차이

유사성 학교생활태도	가정환경유사 (n=23)	학교성적유사 (n=24)	성격,사고유사 (n=470)	취미,특기유사 (n=172)	F
학교적응도	14.78(5.46)	15.75(4.24)	14.30(4.27)	15.46(4.54)	3.47 *
수업충실도	18.13(4.01)	18.58(3.63)	17.47(3.59)	18.46(3.42)	3.77 *
교사에대한평가	17.39(5.09)	15.70(3.32)	15.18(4.19)	15.76(4.06)	2.61

* : p<.05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들은 또래집단의 네 가지 유사성 요인 집단간에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p<.05)

유사성 요인별 네 집단간 차이를 보면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과 취미, 특기가 유사한 친구끼리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 적응도와 수업충실도가 P<.05 수준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이나 취미, 특기가 유사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학업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1-1.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학교생활 태도와 근접성 요인(동일학교나 반, 동일동네 거주, 동일단체 가입) 집단간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 검증을 한 결과는 <표IV-3>, <표IV-4>, <표IV-5>와 같다.

(1)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학교적응도 차이(성별, 지역별)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 적응도 차이는 <표IV-3>과 같다.

<표IV-3>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근접성 변인		동일학교,반		동일동네, 아파트거주		동일교회, 청소년단체가입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297	14.61(4.72)	32	14.38(3.47)	18	13.22(4.91)	347	14.52(4.63)	0.45
	여	313	14.69(4.16)	20	16.40(3.86)	9	15.11(5.37)	342	14.80(4.18)	
제 주 시		168	14.95(3.94)	21	14.71(4.03)	8	14.38(5.58)	197	14.90(4.00)	6.16**
지 역 별	서 귀 포 시	174	13.45(4.69)	12	15.83(4.24)	7	11.86(4.45)	193	13.54(4.68)	
	북 정 문	129	15.04(4.05)	12	16.08(3.00)	1	23.00(0.00)	142	15.18(4.01)	
	남 정 문	139	15.44(4.75)	7	13.71(2.93)	11	13.91(4.59)	157	15.25(4.68)	
계		610	14.65(4.43)	52	15.15(3.72)	27	13.85(5.04)	689	14.66(4.41)	

** : P<.01

<표IV-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에 따라 학교 적응도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는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 =14.95)와 남제주(\bar{X} =15.44)는 동일학교나 반에 의해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도가 높고, 서귀포시(\bar{X} =15.83)인

경우 같은 동네이거나 아파트 거주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인 경우, 북제주($\bar{X}=23$)는 동일 단체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이 학교적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수업충실도 차이(성별, 지역별)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성별, 지역별 수업 충실도 차이는 <표IV-4>와 같다.

<표IV-4>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충실도

변인	근접성	동일학교,반		동일동네, 아파트거주		동일교회, 청소년단체가입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별	남	297	17.84(3.84)	32	17.88(3.39)	18	16.94(4.00)	347	17.80(3.80)	0.92
	여	313	17.70(3.33)	20	18.25(3.42)	9	19.00(4.47)	342	17.76(3.36)	
지역별	제주시	168	17.62(3.17)	21	16.76(3.45)	8	18.75(3.62)	197	17.57(3.22)	3.90**
	서귀포시	174	17.13(3.82)	12	19.75(2.90)	7	15.00(4.97)	193	17.21(3.87)	
	북제주군	129	18.10(3.24)	12	20.00(2.13)	1	21.00(0.00)	142	18.28(3.20)	
	남제주군	139	18.43(3.91)	7	15.43(2.44)	11	18.18(3.82)	157	18.28(3.89)	
계		610	17.76(3.58)	52	18.01(3.36)	27	17.62(4.19)	689	17.78(3.59)	

** : P<.01

<표IV-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에 따라 또래 집단간 수업 충실도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는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18.75$)와 북제주($\bar{X}=21$)는 동일단체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충실도가 높고, 서귀포시($\bar{X}=19.75$)인 경우 같은 동네이거나 같은 아파트 거주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인 경우, 남제주($\bar{X}=18.43$)는 동일학교나 반에 의해 형성된 또래집단이 수업충실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성별, 지역별)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표IV-5> 와 같다.

<표IV-5> 근접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도

변인	근접성	동일학교,반		동일동네, 아파트거주		동일교회, 청소년단체가입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별	남	297	15.97(4.10)	32	15.06(3.89)	18	15.78(4.14)	347	15.87(4.08)	10.00**
	여	313	15.08(4.20)	20	13.90(4.42)	9	13.56(5.05)	342	14.97(4.24)	
지역별	제주시	168	16.17(4.22)	21	14.24(3.94)	8	16.13(2.85)	197	15.96(4.17)	16.06**
	서귀포시	174	13.90(3.83)	12	14.67(3.31)	7	12.43(3.87)	193	13.89(3.80)	
	북제주군	129	16.74(4.00)	12	16.92(4.70)	1	14.00(0.00)	142	16.74(4.03)	
	남제주군	139	15.59(4.11)	7	11.71(3.15)	11	16.00(5.57)	157	15.45(4.24)	
계		610	15.50(4.17)	52	14.61(4.10)	27	15.03(4.49)	689	15.42(4.18)	

** : $P<.01$

<표IV-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지역별로 모두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15.97$), 여학생($\bar{X}=15.08$) 모두 동일학교나 반에 의해 형성된 또래집단인 경우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의미있게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형성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좀더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제주시($\bar{X}=16.17$)는 동일학교나 반에 의해 형성된 또래집단인 경우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서귀포시($\bar{X}=14.67$)와 북제주($\bar{X}=16.92$)는 같은 동네이거나 같은 아파트 거주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인 경우, 남제주($\bar{X}=16$)는 동일 단체를 통해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접성 요인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생활태도 각 하위영역에서 볼 때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동일 거주지를 요인으로 한 또래집단이 평균적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얻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일학교나 반이 요인이 된 또래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성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동후기의 교우관계 형성요인을 근접성이라고 보고한 윤혜중

(199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세영(1996)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또래집단의 학교관련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다른 결과이며, 이는 연구대상이 다른 까닭이기 때문이고 한편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일치하는 부분이다.

2)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1-2.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학교생활 태도와 유사성 요인(가정환경의 유사성, 학교 성적의 유사성, 성격이나 사고의 유사성, 취미나 특기의 유사성) 집단간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 검증을 한 결과는 <표IV-6>, <표IV-7>, <표IV-8>과 같다.

(1)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학교적응도 차이(성별, 지역별)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 적응도 차이는 <표IV-6>과 같다.

<표IV-6>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유사성 변인		가정환경유사		학교성적유사		성격, 사고유사		취미, 특기유사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16	14.44(6.07)	11	17.55(4.03)	199	13.88(4.58)	121	15.31(4.37)	347	14.52(4.63)	2.56
	여	7	15.57(4.08)	13	14.23(3.94)	271	14.61(4.02)	51	15.84(4.97)	342	14.80(4.18)	
지 역 별	제 주 시	9	13.89(4.51)	5	16.20(2.59)	141	14.76(3.90)	42	15.45(4.40)	197	14.90(4.00)	6.25**
	서 귀 포 시	6	13.33(4.08)	6	14.00(4.90)	131	12.64(4.15)	50	15.86(5.33)	193	13.54(4.68)	
	북 제 주 군	4	19.50(8.81)	3	19.33(3.21)	95	14.92(3.75)	40	15.08(3.79)	142	15.18(4.01)	
	남 제 주 군	4	14.25(4.79)	10	15.50(4.58)	103	15.22(4.83)	40	15.38(4.45)	157	15.25(4.68)	
계		23	14.78(5.46)	24	15.75(4.24)	470	14.30(4.27)	172	15.46(4.54)	689	14.66(4.41)	

** : P<.01

<표IV-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에 따라 학교 적응도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지역별로는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 =16.20)와 남제주(\bar{X} =15.50)는 학교 성적이 비슷한 친구끼리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 적응도가 높고, 서귀포시(\bar{X} =15.86)인 경우 취미나 특기가 같은 친구끼리 형성된 또래집단이, 북제주(\bar{X} =19.50)인 경우 가정환경이 유사한 친구끼리 형성된 또래집단이 학교 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의 수업충실도 차이(성별, 지역별)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 충실도 차이는 <표IV-7>과 같다.

<표IV-7>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충실도

유사성 변인		가정환경유사		학교성적유사		성격, 사고유사		취미, 특기유사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16	18.19(4.32)	11	19.18(3.79)	199	17.22(3.91)	121	18.57(3.40)	347	17.80(3.80)	5.61**
	여	7	18.00(3.51)	13	18.08(3.57)	271	17.66(3.33)	51	18.22(3.51)	342	17.76(3.36)	
지 역 별	제 주 시	9	18.56(3.54)	5	19.00(1.87)	141	17.11(3.19)	42	18.74(3.07)	197	17.57(3.22)	2.63
	서귀포시	6	16.33(3.93)	6	17.83(3.76)	131	16.82(3.77)	50	18.28(4.03)	193	17.21(3.87)	
	북제주군	4	20.50(5.20)	3	19.33(2.31)	95	17.99(3.20)	40	18.68(3.02)	142	18.28(3.20)	
	남제주군	4	17.50(4.12)	10	18.60(4.74)	103	18.31(4.01)	40	18.20(3.43)	157	18.28(3.89)	
계		23	18.13(4.01)	24	18.58(3.63)	470	17.47(3.59)	172	18.46(3.42)	689	17.78(3.59)	

** : P<.01

<표IV-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에 따라 학교 적응도는 지역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성별로는 P<.01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 =19.18)의 경우 학교성적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수업충실도가 높고 여학생(\bar{X} =18.22)의 경우는 취미나 특기가 같은 친구끼리 형성된 또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충실도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3)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성별, 지역별)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표IV-8>과 같다.

<표IV-8> 유사성 요인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도

유사성 변인		가정환경유사		학교성적유사		성격, 사고유사		취미, 특기유사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16	17.82(5.87)	11	15.73(2.28)	199	15.56(4.02)	121	16.15(4.00)	347	15.87(4.08)	6.40*
	여	7	16.43(2.76)	13	15.69(4.11)	271	14.92(4.30)	51	14.84(4.12)	342	14.97(4.24)	
지 역 별	제 주 시	9	17.33(4.00)	5	17.20(3.83)	141	15.79(4.34)	42	16.07(3.72)	197	15.96(4.17)	15.67**
	서귀포시	6	14.33(3.14)	6	15.00(1.90)	131	13.45(3.57)	50	14.86(4.44)	193	13.89(3.80)	
	북제주군	4	23.00(6.06)	3	17.00(2.65)	95	16.58(3.75)	40	16.48(4.18)	142	16.74(4.03)	
	남제주군	4	16.50(5.74)	10	15.00(3.94)	103	15.29(4.43)	40	15.85(3.74)	157	15.45(4.24)	
계		23	17.39(5.09)	24	15.70(3.32)	470	15.18(4.19)	172	15.76(4.06)	689	15.42(4.18)	

* : P<.05, ** : P<.01

<표IV-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로는 P<.05 수준으로, 지역별로는 P<.01 수준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17.82$)과 여학생($\bar{X}=16.43$)의 경우 모두 가정환경이 비슷한 또래집단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된 또래집단들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제주시($\bar{X}=17.33$), 북제주($\bar{X}=23$), 남제주($\bar{X}=16.50$)에서 가정환경이 비슷한 또래집단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 지역($\bar{X}=15$)만 학교성적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에 학교 적응도나 수업 충실도와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 1-2는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성 요인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 평균으로도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생활태도 각 하위영역에서 볼 때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성적이 비슷한 또래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며 학교 적응도는 지역별로, 수업 충실도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교사에 대한 평가는 가정환경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 성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동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조건을 성격으로 꼽은 윤혜중(1994)의 연구결과와 성격특성을 교우관계의 첫째 요인으로 꼽은 윤정희(199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며, 친한 친구 사이에 학업성적이 비슷하다는 최순자(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성격이나 취미, 특성이 비슷한 또래집단이 학교 관련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최세영(1996)의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으며 이는 초등학생과 고교생간의 교우선택 기준이 확연히 다를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2.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2는 아동기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아동기 또래집단의 유형별(친구 수에 따라, 집단 내 우두머리의 유무에 따라, 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라)에 따른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는 <표 IV-9>, <표 IV-10>, <표 IV-11>과 같다.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는 <표 IV-9>와 같다.

<표IV-9> 또래집단 유형(친구 수)에 따른 학교생활태도의 차이

친구수 학교생활태도	고립아(0) (n=8)	단짝(1) (n=30)	짝패(2-5) (n=342)	도당(6이상) (n=309)	F
학교적응도	16.40(4.88)	18.37(4.80)	15.07(4.31)	13.93(4.31)	7.47 **
수업충실도	18.50(3.29)	18.80(3.42)	17.95(3.52)	17.46(3.65)	1.96
교사에대한평가	16.00(2.87)	16.40(3.98)	15.40(4.13)	15.33(4.28)	0.64

** : $p < .01$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 수에 따른 네 가지 또래집단간의 학교생활태도에는 학교 적응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 < .01$).

집단간 차이를 보면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수가 1명인 단짝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 생활 태도 세 하위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교 적응도에서는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두머리의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는 <표 IV-10>과 같다.

<표IV-10> 또래집단 유형(대장의 유무)에 따른 학교생활태도의 차이

대장유무 학교생활태도	그렇다(n=93)	아니다(n=588)	F
학교적응도	16.24(4.78)	14.40(4.29)	14.47 **
수업충실도	18.82(4.01)	17.61(3.49)	9.40 **
교사에대한평가	16.18(4.65)	15.30(4.09)	3.70

** : p<.01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두 또래집단간 학교생활태도에는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1).

집단간 차이를 보면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집단 내 우두머리를 가지고 있는 또래집단이 학교생활 태도 세 하위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서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교사나 어른들의 영향력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또래집단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는 <표 IV-11>과 같다.

<표IV-11> 또래집단 유형(도당성 여부)에 따른 학교생활태도의 차이

도당성 학교생활태도	그렇다(n=47)	아니다(n=634)	F
학교적응도	14.45(4.28)	17.30(5.15)	19.51 **
수업충실도	17.58(3.47)	20.26(4.09)	26.25 **
교사에대한평가	15.31(4.21)	16.79(3.43)	5.71 *

* : $p < .05$, ** : $p < .01$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두 또래 집단간 학교생활태도에는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P < .01$), 교사에 대한 평가($P < .05$)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집단간 차이를 보면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이 학교생활 태도 세 하위 영역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유의한 수준의 점수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도당성이 있는 또래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학교생활 태도 전반에 걸쳐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결과이다.

1) 또래집단의 친구 수와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2-1. 또래집단의 친구 수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학교생활 태도와 친구 수(친구가 없는 아동들, 친구가 1명인 단짝집단, 친구가 2-5명정도인 짝패집단, 친구가 6명 이상인 패거리 또는 도당집단)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검증을 한 결과는 <표IV-12>, <표IV-13>, <표IV-14>와 같다.

(1)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간의 학교적응도 차이(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차이는 <표IV-12>와 같다.

<표IV-12>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변인	친구수	없다		1명		2-5명		6-10명 또는 그이상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6	16.68(5.26)	19	20.17(3.66)	153	14.58(4.38)	169	14.03(4.63)	347	14.52(4.63)	0.56
	여	2	15.48(4.23)	11	13.00(4.24)	189	15.91(4.37)	140	13.82(3.92)	342	14.80(4.18)	
지 역 별	제 주 시	-	-	2	18.35(4.79)	97	15.26(4.24)	98	14.54(3.79)	197	14.90(4.00)	6.02**
	서 귀 포 시	2	13.93(5.07)	8	21.00(1.41)	97	14.27(4.78)	86	12.63(4.33)	193	13.54(4.68)	
	북 제 주 군	2	19.00(2.87)	9	19.50(4.95)	63	15.81(3.99)	68	13.97(3.66)	142	15.18(4.01)	
	남 제 주 군	4	16.50(5.92)	11	17.18(5.13)	85	15.25(4.01)	57	14.81(5.41)	157	15.25(4.68)	
계	8	16.40(4.88)	30	18.37(4.80)	342	15.07(4.31)	309	13.93(4.31)	689	14.66(4.41)		

** : P<.01

<표IV-1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라 학교 적

응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외톨이가 한 명도 조사되지 않았으며 제주시($\bar{X}=18.35$), 서귀포시($\bar{X}=21$), 북제주($\bar{X}=19.50$), 남제주($\bar{X}=17.18$) 모두 단짝, 즉 친구를 한 명 가지고 있는 집단 아동들이 다른 집단보다 학교적응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간의 수업충실도 차이(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 충실도 차이는 <표IV-13>과 같다.

<표IV-13>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충실도

변인	친구수	없다		1명		2-5명		6-10명 또는 그이상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6	19.05(3.25)	19	19.17(3.79)	153	17.88(3.40)	169	17.53(4.13)	347	17.80(3.80)	0.04
	여	2	16.50(3.54)	11	18.36(2.80)	189	18.01(3.63)	140	17.40(2.99)	342	17.76(3.36)	
지 역 별	제 주 시	-	-	2	21.00(1.41)	97	17.94(3.37)	98	17.14(3.02)	197	17.57(3.22)	3.45*
	서 귀 포 시	2	17.51(3.66)	8	17.25(5.50)	97	20.00(4.24)	86	16.81(3.95)	193	17.21(3.87)	
	북 제 주 군	2	18.00(5.66)	9	19.56(1.59)	63	18.41(3.38)	68	18.00(3.15)	142	18.28(3.20)	
	남 제 주 군	4	18.00(2.58)	11	18.91(2.70)	85	18.14(3.67)	57	18.39(4.48)	157	18.28(3.89)	
계	8	18.50(3.29)	30	18.80(3.42)	342	17.95(3.52)	309	17.46(3.65)	689	17.78(3.59)		

* : $P < .05$

<표IV-1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라 수업 충실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외톨이가 한 명도 조사되지 않았으며 제주시($\bar{X}=21$), 북제주($\bar{X}=19.56$), 남제주($\bar{X}=18.91$) 모두 단짝, 즉 친구를 한 명 가지고 있는 집단 아동들이, 서귀포시($\bar{X}=20$)인 경우는 짝패 즉 2-5명의 친구를 가진 또래집단이 수업충실도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친구수에 따른 또래집단간의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는 <표IV-14>와 같다.



<표IV-14>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도

변인	친구수	없다		1명		2-5명		6-10명 또는 그이상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6	15.67(3.27)	19	17.00(3.53)	153	15.86(4.09)	169	15.77(4.18)	347	15.87(4.08)	8.70**
	여	2	17.00(1.41)	11	15.36(4.67)	189	15.04(4.15)	140	14.81(4.36)	342	14.97(4.24)	
지 역 별	제 주 시	-	-	2	17.50(0.71)	97	15.96(3.98)	98	15.93(4.41)	197	15.95(4.17)	15.61**
	서 귀 포 시	2	14.02(3.98)	8	14.00(4.34)	97	18.00(2.83)	86	13.64(3.55)	193	13.89(3.80)	
	북 제 주 군	2	17.78(0.71)	9	18.50(4.56)	63	16.48(4.18)	68	16.79(3.90)	142	16.73(4.03)	
	남 제 주 군	4	13.75(1.71)	11	16.82(3.06)	85	15.56(4.10)	57	15.12(4.71)	157	15.45(4.24)	
계	8	16.00(2.87)	30	16.40(3.98)	342	15.40(4.13)	309	15.33(4.28)	689	15.42(4.18)		

** : P<.01

<표IV-1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친구 수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지역별로 모두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17$)의 경우 단짝, 즉 친구수가 1명인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여학생($\bar{X}=17.00$)인 경우 친구가 없거나 친구수가 적을수록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bar{X}=17.50$)와 북제주($\bar{X}=18.50$), 남제주($\bar{X}=16.82$)인 경우가 친구 수 1명인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bar{X}=18$)인 경우는 짝패 즉 친구가 2-5명인 경우의 또래집단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 2-1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 평균으로도 학교 적응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생활태도 각 하위영역에서 볼 때도 세 하위영역 모두에서 단짝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점수를 얻어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지역별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친구 수에 따른 또래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최세영(1996)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2)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2-2.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학교생활 태도와 우두머리 유무(우두머리를 가진 집단, 우두머리가 없는 집단)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 검증을 한 결과는 <표IV-15>, <표IV-16>, <표IV-17>과 같다.

(1)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 학교적응도 차이(성별, 지역별)

우두머리 유무와 성별, 지역별에 따른 또래집단간의 학교 적응도 차이는 <표IV-15>와 같다.



<표IV-15>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변인		우두머리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8	15.77(5.69)	303	14.36(4.46)	341	14.52(4.63)	0.31		
	여	55	16.57(4.06)	285	14.45(4.12)	340	14.80(4.18)			
지역별	제 주 시	26	15.92(3.77)	171	14.75(4.03)	197	14.90(4.00)	5.36**		
	서귀포시	18	14.78(4.54)	173	13.41(4.69)	191	13.54(4.68)			
	북제주군	27	16.11(4.73)	113	14.96(3.80)	140	15.18(4.01)			
	남제주군	22	17.91(5.78)	131	14.80(4.33)	153	15.25(4.68)			
계		93	16.24(4.78)	588	14.40(4.29)	681	14.66(4.41)			

** : P<.01

<표IV-1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라 학교 적응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15.92$), 서귀포시($\bar{X}=14.78$), 북제주($\bar{X}=16.11$), 남제주($\bar{X}=17.91$) 즉,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우두머리가 있는 또래집단에 속한 경우 학교 적응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 수업충실도 차이(성별, 지역별)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 충실도 차이는 <표IV-16>과 같다.

<표IV-16>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충실도

변인		우두머리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8	18.77(4.25)	303	17.67(3.73)	341	17.80(3.80)	0.11		
	여	55	18.86(3.88)	285	17.55(3.22)	340	17.76(3.36)			
지역별	제 주 시	26	18.12(3.51)	171	17.49(3.17)	197	17.57(3.22)	3.24**		
	서귀포시	18	18.78(3.83)	173	17.05(3.85)	191	17.21(3.87)			
	북제주군	27	18.79(3.11)	113	18.16(3.22)	140	18.28(3.20)			
	남제주군	22	19.70(5.49)	131	18.04(3.51)	153	18.28(3.89)			
계		93	18.82(4.01)	588	17.61(3.49)	681	17.78(3.59)			

** : $P<.01$

<표IV-1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라

수업 충실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18.12$), 서귀포시($\bar{X}=18.78$), 북제주($\bar{X}=18.79$), 남제주($\bar{X}=19.70$) 즉,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우두머리가 있는 또래집단에 속한 경우 수업 충실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우두머리의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의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
(성별, 지역별)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표IV-17>과 같다.

<표IV-17>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도

변인		우두머리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8	16.77(4.92)	303	15.76(3.96)	341	15.87(4.08)	9.67**		
	여	55	15.79(4.47)	285	14.81(4.18)	340	14.97(4.24)			
지역별	제 주 시	26	15.19(4.45)	171	16.08(4.13)	197	15.96(4.17)	14.90**		
	서귀포시	18	15.61(4.06)	173	13.71(3.74)	191	13.89(3.80)			
	북제주군	27	18.54(4.47)	113	16.30(3.81)	140	16.74(4.03)			
	남제주군	22	14.91(4.78)	131	15.54(4.15)	153	15.45(4.24)			
계		93	16.18(4.65)	588	15.30(4.09)	681	15.42(4.18)			

** : $P < .01$

<표IV-1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지역별로 모두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16.77$)과 여학생($\bar{X}=15.79$) 모두 우두머리가 있는 또래집단에 속한 아동인 경우가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의미있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bar{X}=16.08$)와 남제주($\bar{X}=15.54$)는 우두머리가 없는 또래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서귀포시($\bar{X}=15.61$)와 북제주($\bar{X}=18.54$)인 경우 우두머리가 있는 또래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차이도 유의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 2-2는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 평균으로도 학교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생활태도 각 하위영역에서 볼 때도 세 영역 모두 우두머리가 있는 또래집단이 긍정적인 점수를 보여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지역별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 검증

가설 2-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로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학교생활 태도와 집단의 도당성 여부(도당성이 있는 집단, 도당성이 없는 집단)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성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 검증을 한 결과는 <표IV-18>, <표IV-19>, <표IV-20>과 같다.

(1)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학교적응도 차이(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 적응도의 차이는 <표IV-18>과 같다.

<표IV-18>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학교적응도

변인		도당성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2	14.24(4.41)	309	17.21(5.75)	341	14.52(4.63)	1.52		
	여	15	14.67(4.16)	325	17.50(3.78)	340	14.80(4.18)			
지역별	제 주 시	12	14.75(4.00)	185	17.25(3.33)	197	14.90(4.00)	5.49**		
	서귀포시	9	11.78(2.17)	182	13.63(4.76)	191	13.54(4.68)			
	북제주군	9	15.05(3.95)	131	16.90(4.61)	140	15.18(4.01)			
	남제주군	17	14.60(4.18)	136	20.33(5.32)	153	15.25(4.68)			
계		47	14.45(4.28)	634	17.30(5.15)	681	14.66(4.41)			

** : P<.01

<표IV-1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라 학교적응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지역별로는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 =17.25), 서귀포시(\bar{X} =13.63), 북제주(\bar{X} =16.90), 남제주(\bar{X} =20.33) 즉,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에 속한 경우 학교 적응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수업충실도 차이(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 충실도의 차이는 <표IV-19>와 같다.

<표IV-19>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수업충실도

변인		도당성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2	17.53(3.70)	309	20.33(3.84)	341	17.80(3.80)	0.12		
	여	15	17.65(3.25)	325	20.13(4.70)	340	17.76(3.36)			
지역별	제 주 시	12	17.39(3.12)	185	20.33(3.63)	197	17.57(3.22)	3.10**		
	서귀포시	9	17.13(3.91)	182	18.89(2.71)	191	17.21(3.87)			
	북제주군	9	18.24(3.16)	131	18.80(3.85)	140	18.28(3.20)			
	남제주군	17	17.83(3.54)	136	21.72(4.79)	153	18.28(3.89)			
계		47	17.58(3.47)	634	20.26(4.09)	681	17.78(3.59)			

** : P<.01

<표IV-1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라 수업 충실도는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지역별로는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bar{X} =20.33), 서귀포시(\bar{X} =18.89), 북제주(\bar{X} =18.80), 남제주(\bar{X} =21.72) 즉,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에 속한 경우 수업 충실도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교사에 대한 평가 차이
(성별, 지역별)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표IV-20>과 같다.

<표IV-20>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집단간 성별, 지역별 교사에 대한 평가도

변인		도당성		그렇다		아니다		계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성 별	남	32	17.53(3.70)	309	20.33(3.84)	341	17.80(3.80)	7.80**		
	여	15	17.65(3.25)	325	20.13(4.70)	340	17.76(3.36)			
지역별	제 주 시	12	17.39(3.12)	185	20.33(3.63)	197	17.57(3.22)	15.37**		
	서귀포시	9	17.13(3.91)	182	18.89(2.71)	191	17.21(3.87)			
	북제주군	9	18.24(3.16)	131	18.80(3.85)	140	18.28(3.20)			
	남제주군	17	17.83(3.54)	136	21.72(4.79)	153	18.28(3.89)			
계		47	15.31(4.21)	634	16.79(3.43)	681	17.78(3.59)			

** : P<.01

<표IV-20>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지역별로 모두 P<.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bar{X} =20.33)과 여학생(\bar{X} =20.13)의 경우 모두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에 속한 아동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의미있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에(\bar{X} =21.72) 즉, 제주도 전 지역에서 아동들은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에

속한 경우 교사에 대한 평가가 의미있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가설 2-3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 평균으로도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학교생활태도 각 하위영역에서 볼 때도 세 영역 모두에서 도당성이 없는 또래집단이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지역별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별, 지역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본 연구는 아동기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 생활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기 또래집단 형성요인에 따른 학교생활태도는 어떠한가?
2. 아동기 또래집단의 유형별로 학교생활태도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1.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1-2.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1. 또래집단의 친구 수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2.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

역별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2-3.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전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로 조사하고 회수된 689부의 질문지를 연구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측정 도구로는 또래집단 형성요인과 또래집단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최세영(1996)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을 초등학생에 맞도록 문장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학교 생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김길순(1995)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은 F검증(다원 변량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집단 형성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의 관계 검증에서는, 근접성 요인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의 평균점수 차이는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유사성 요인에 따른 또래집단간에 학교생활태도의 평균점수 차이는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P < 0.05$). 따라서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학교 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근접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학교 생활 태도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서는 남녀 어린이 모두,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체로 동일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또래집단이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녀 어린이 모두, 그리고 지역별로 보아도 다른 요인들보다 같은 학교나 반 친구로 형성된 또래집단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귀포 지역인 경우 학교 적응도나 수업 충실도나 교사에 대한 평가 모든 학교 생활 태도 영역에서 동일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또래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래집단의 근접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1은 하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만 수용되고 있다.($P < .01$)

유사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집단과 학교 생활 태도의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서는 학교 성적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의의있게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P < 0.05$), 교사에 대한 평가는 가정 환경이 유사한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이한 것은 서귀포 지역인 경우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가 취미나 특기가 유사한 또래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제주군의 경우는 학교 적응도, 수업 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 모두에서 가정 환경이 유사한 또래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또래집단의 유사성 요인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1-2는 평균점수($P < .05$)와 하위영역($P < .01$, $P < .05$)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긍정되었다.

둘째, 또래집단 유형과 학교 생활 태도간의 관계 검증에서는 친구수는 한명인 단짝 집단이 학교적응도, 수업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며 특히 학교 적응도는 의의있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P < 0.01$). 그리고 집단내 우두머리가 있는 집단이 집단내 우두머리가 없는 집단에 비해 학교 적응도, 수업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는 유의있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P < 0.01$). 한편 도당성 여부에 따라서는 학교생활태도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있는 점수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당성이 없는 집단이 학교적응도, 수업 충실도($P < 0.01$), 그리고 교사에 대한 평가($P < 0.05$) 모두에서 유의있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의 유형과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는 연구결과 모두 긍정되었다.

친구수에 따른 또래집단과 학교생활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세가지 영역 모두에서 남녀 어린이 모두,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친구가 1명인 또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 다음은 친구가 없는 외톨이이거나 2명 내지 5명 이내의 친구로 형성된 또래집단이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친구수가 5명 이하로 많지 않을 경우가 더 학교생활 태도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래집단의 친구수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1은 연구결과 긍정되었다. ($P < .01$)

집단내 우두머리 유무에 따른 또래집단과 학교 생활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서는 남녀 어린이 모두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있는 집단이 유의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평가인 경우 제주시와 남제주군만 우두머리 없는 집단이 점수가 높고 다른 지역은 우두머리를 가진 집단이 역시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유무와 학교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2도 연구결과 긍정되었다. ($P < .01$)

또래집단의 도당성, 즉 비행성 여부와 학교 생활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관계를 보면 학교 적응도, 수업 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 모든 영역에서 남녀 어린이 모두, 그리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도당성이 없는 집단이 유의있는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와 학교 생활태도간에는 성별, 지역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3도 연구결과 모두 긍정되었다. ($P<.01$, $P<.05$)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가설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기의 또래집단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태도에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동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된 물리적 요인, 심리적 동기, 그렇게 해서 형성된 또래집단의 유형에 따라 학교 생활 태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집단 특성에 따라 학교 관련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최세영(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아동기가 또래에의 지향과 동조가 강한 시기로 또래집단이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 성격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제주도내의 초등학생들의 또래집단 특성과 또 그에 따른 학교생활 태도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결론

아동기의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생활태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접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또래집단간에 학교 생활 태도 평균에 있어 유의있는 차이는 없으나, 하위 영역에서는 지역별, 성별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같은 청소년 단체나 교회활동 등이 요인이 되어 형성된 또래집단이 학교 생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목적있는 집단활동이나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거주지나 학교를 벗어나 보다 큰 세계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유사성 요인에 따라 분류된 또래집단간의 학교 생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교 적응도와 수업 충실도에서는 학교 성적이 비슷한 또래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그 다음 취미나 특기 유사 집단이, 가정환경 유사 집단, 성격유사집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평가는 가정환경이 유사한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미나 특기 유사집단, 성적 유사집단, 성격 유사집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아직도 도내 초등학교에서 성적이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성격을 매개로 한 인간적 관계가 경시되

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성적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을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으로 돌려놓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미나 특기가 유사한 집단 역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아동들이 또래집단에 속할 수 있는 즉, 따돌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매개로 취미나 특기, 나름대로의 소질계발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유사성 요인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 영역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교사에 대한 관심이 친구에 대한 관심보다 적기 때문인 것이다.

셋째, 친구 수에 따라 분류된 또래집단간의 학교 생활 태도의 차를 보면 학교 적응도에서만 단적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수가 6명에서 10명 또는 그 이상인 경우가 학교 생활 태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친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교나 학습을 벗어난 다른 쪽으로 관심이나 활동기회가 증가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를 가진 아동들이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뚜렷한 목적없이 많은 아동들이 집단을 이루고 다니는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마음이 맞고 서로를 이해해 주며 우정을 키워갈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들을 배려해야 한다.

넷째, 또래집단내 우두머리의 유무에 따른 학교 생활 태도의 차이를 보면 우두머리가 있는 경우가 학교 생활 태도에서 유의있게 긍정적인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또래집단의 역할이 강조되는 의의있는 결과이다. 아동들의 생활 지도뿐 아니라 교사가 다가설 수 없는 아동들만의 문제나 아동세계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치료방법으로 또래집단의 우두머리, 즉 리더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어쩌면 교사의 직접적 지도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또래상담교육 역시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교육계의 움직임이다. 아직 초등에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아동들의 생활지도, 학습지도, 문제해결에 또 다른 아동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많은 교육적 시사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다섯째, 또래집단의 도당성 여부에 따른 학교 생활 태도의 차이를 보면 학교 적응도, 수업 충실도, 교사에 대한 평가 모든 영역에서 도당성이 없는 집단이 의의있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아동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직 아동들은 인격이나 성격이 완성된 단계가 아닌 다듬어지는 과정이라 보고 도당성 집단에 대한 교사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도당성 집단들은 노는 방법을 모르고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사회 이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노는 방법,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면 이들의 사회 이탈 행위를 많은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비행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학급의 교우관계 개선이 그 지도책이 될 수 있음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아동인 경우 또래집단 특성에 따라 학교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우관계 선행연구들은 또래집단 특성과 학급내 역동성을 다룬 연구가 아직 극소수이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도 다른 점이 많이 밝혀진 바 앞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형성요인과 유형의 두 가지만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또래집단의 다른 특성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생활태도가 형성되어 가는 또래집단 내 과정연구는 또래집단과 학교생활태도의 관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래집단 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또래집단 특성과 아동의 학교생활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또래집단 특성과 아동들의 자아관, 성격, 가치관, 흥미등과의 관계도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 고명규 (1978).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에 관한 일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0.
- 고진경 (1987). “아동의 교우관계 개념 발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이중 (1992). 「청소년과 교육병리」, 서울 : 양서원.
- 김길순 (1995). “아동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지원과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남성 (1985). 「교육심리학」, 서울 : 교육출판사.
- 김미란 (1993). “야간고등학교 학생문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민선 (1989). “국민학교 아동의 우정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병성 (1992). 「학교의 사회 심리학」, 서울 : 양서원.
- 김소희 (1990).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행자 (1985). 「아동발달론」, 서울 : 수학사.
- 문정숙 (1990). “유아의 교우관계 지위유형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덕후 (1991).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양상에 대한 도시, 농촌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소현 (1978). “중학생의 우인간의 심리적 유사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박용현 (1973). 「사회적 행동과 학습교육학 전서」, 서울 : 교육출판사.
- 최정숙 (1974). 「교육사회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1985). 「학교 사회」, 서울 : 배영사.
- 박희숙 (1985). “6-7세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과 집단내 인기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 송규운 (1988). “지각성향 수준에 따른 교우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오세득 (1990).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인기아와 고립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명석 (1992). “초등학생의 배경특성이 교우관계 결속 및 해체에 미치
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 유재정 (1992).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 윤정희 (1989). “학급내 교우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혜중 (1994). “아동 후기의 교우관계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규환 (1961). 「교육사회학, 현대교육총서 6」, 서명원(편). 서울 : 현
대교육출판사.

- 이선경 (1989). “용모, 선호, 성격정보가 아동의 대인매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용교 (1992). “대학생의 친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8호」, 한국 청소년 연구원.
- 이정덕 (1987). 「아동학」, 서울 : 교문사.
- 이재우 (1993). “국민학교 아동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정 (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이혜원 (1989). “국민학교 아동의 친구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 이혜정 (1989). “노는 애들의 세계, 중학교 또래 집단의 학교 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희승 (1991). 「우리말 대사전」, 서울 : 민중서림.
- 임용수 (1985). “학교 생활 태도 척도”,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최세영 (1996). “고교생 또래집단 특성과 학교 관련 태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 교원 대학교 대학원.
- 최순자 (1984). “아동 후기 교우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함중환 (1984). 「청소년(교육심리학적 접근)」, 서울 : 상조사.
- 황중건 (1984). 「교육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 Bar-Tal, D. & Saxe, L. (1978).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New York : John Wiley.
- Drewry, D.K., & Clark, M.L. (1984). Factors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preschooler's friendship,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 37-44.
- Cusic, P. A. (1973). *Inside High School*, New York : Holt.
- Goodlad, J.I.(1984). *A Place Called School*. New york : McGraw-Hill.
- Hartup,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o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Vol. 4. New York : Wiley.
- Havistghurst & Neurgarten. *Education and Society*, Boston : Allyn
and Boston Inc.. 이상로. 이윤수 역 (1983).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 출판사.
- Hurlock, E. B (1985). *Child Development*, Sixth Edition, Singapore :
Kin Keong Co. 2.
- Morrish, I. *The Sociolgy of Education : An Introduction*.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석태종 역 (1985). 「교육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 Sugarman, B (1967). "Involvement in Youth Clture, Academic Achievement
and Conformity in School ", *Britich Journal of Sociology*. Vol. 18 No. 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in the childhood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Kim Mi-Kyoung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o, Myou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that children form and their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these purpose, I set up the following hypothesis.

Hypothesis 1.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 factor which forms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1.1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 approach factor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1.2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 similarity factor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Hypothesis 2.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a type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2.1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number of friend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2.2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existence of the head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2.3 There would be notable differences between the where or not of the faction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ccording to sex and area.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sis, I set up 720 students who are fifth and sixth grade at the elementary school in Chejudo as the subjects of study. Among them, the final subject of analysis was 689.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examine a approach factor among the relation between a factor which forms peer group and the school attitudes, in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ejudo. a peer group with a factor of the same residence showed high in the adjustment to school and the faithfulness to the class.

Second, to see a similarity factor among the relation between a factor which forms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in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ejudo, a group with similar character showed high in the adjustment to school and the faithfulness to the class. And the peer group with similar home environment showed an affirmative evaluation to teachers.

Third, to examine a type according to the number of friend among the relation between a type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in case of sex and area, a group with just one friend showed the most affirmative attitude toward school life. A group with less than five friends showed usually an affirmative to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with a notable level.

Fourth, to see a type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the head within a group among the relation between a type of peer group and the school attitudes, in case of sex and area together, a peer group without the head showed an affirmative in the sub area of all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with notable level.

Fifth, to see a type according to the whether or not of the faction among the relation between a type of peer group and the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a peer group without the faction showed an affirmative in the sub area of all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with a notable level.

The significance of study is to offer the practical data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ejudo and their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In order words, it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that children belong t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ttitudes toward school life. When we consider that a peer group in the childhood had lots of effect on the attitude, value and the formation of character of the members, it also suggests that the education to approach more closely to the children would be possible by using the movement within the peer group.



부 록

친구관계와 학교생활태도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평소 여러분의 친구관계가 학교생활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지는 오직 개인적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8.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 미 경 드 립

※ 다음 사항을 간단히 적어주세요.

() 초등학교 () 학년 성별 (남 , 여)

교우(친구)관계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답해 주세요.


1. 나와 친한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친구들과 친하게 된 이유는?()
① 같은 학교, 같은 반이기 때문에
② 같은 동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③ 같은 교회나, 청소년 단체 등에 들어있기 때문에
2. 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 ()
① 가정환경이 비슷해서 ② 학교성적이 비슷해서
③ 성격이나 생각이 비슷해서 ④ 취미나 특기가 비슷해서
3.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의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도 없다. ② 1명 ③ 2-5명정도 ④ 6-10명 또는 그 이상
※. 여기에 ①번에 답한 사람은 바로 학교생활태도 설문지로 넘어가서 답해 주세요.
4.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집단에는 대장(우두머리)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집단은 나이가 같고 친밀하며 흥미거리도 비슷합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 집단은 남을 헐박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학교 생활태도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평소 생각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해당란에 ○표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많다.					
2. 나는 학교에 있을 때면 매우 즐겁다.					
3. 나는 우리학교가 매우 마음에 든다.					
4. 나에게 학교는 매우 친한 친구같다.					
5. 나는 학교생활에서 아주 많은 것을 얻고 있다.					
6.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모두 뜻있고 즐거운 행사들이다.					
7. 나는 수업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때가 자주 있다.					
8. 나는 수업시간 중에 딴 생각을 많이 한다.					
9.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나에 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					
10. 만약 내 마음대로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면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들 대 부분을 그대로 배우고 싶다.					
11.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은 나에 게 정말로 흥미있는 내용들이다.					
12. 나는 학교 생활 가운데서 공부시간 이 정말 즐겁다.					
13.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 배웠으 면 좋겠다.					
14. 나의 선생님은 나는 틀렸고 선생님이 은 항상 옳은 것처럼 행동하신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5. 나의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어떤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 대해 주신다.					
16. 나의 선생님이 우리들을 대하고 가르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7. 우리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8. 내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의논)하고 싶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